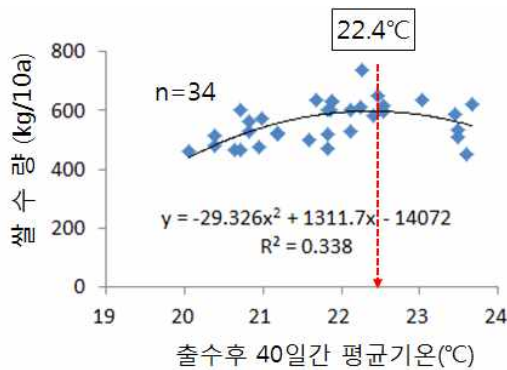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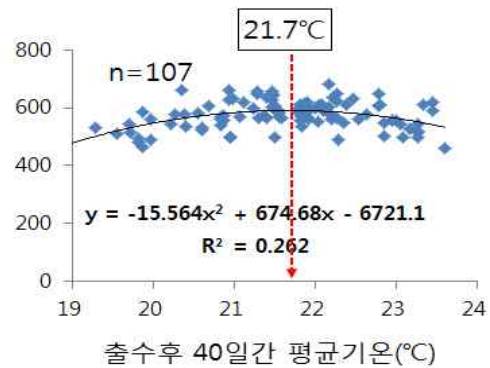


나. 최고품질벼 생태형별 최적 등숙온도

2015년 8개 도농업기술원에서 수행된 최고품질벼 품종들의 수량과 지역별 기상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-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시험에 사용된 중생종 3품종(고품, 하이아미, 대보)은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이 22.4℃였을 때 수량성이 가장 높았으며, 중만생종 8품종(삼광, 호품, 칠보, 진수미, 영호진미, 미품, 수광, 현품)은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이 21.7℃였을 때 수량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만생종 품종들이 중생종 품종들보다 다소 낮은 기온에서도 등숙이 양호한 것으로 여겨졌다. 따라서 이 자료는 최고품질벼 품종에 그치지 않고 밥쌀용 품종인 중생종 및 중만생종 자포니카 품종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앞으로 개발될 신품종의 재배적지 선정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조생종인 윤광은 철원, 제천, 진안 등 3개 지역에서만 시험이 수행되어 분석이 곤란하였다.



<중생종 3품종> : 22.4℃



<중만생종 8품종> : 21.7℃

* 중생종 : 고품, 하이아미, 대보

* 중만생종 : 삼광, 호품, 칠보, 진수미, 영호진미, 미품, 수광, 현품

<그림 1-2> 중생종과 중만생종 품종들의 수량과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과의 관계

다. 최고품질벼 품종별 최적 등숙온도

최고품질벼 품종별 최적 등숙온도는 그림 1-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중생종인 고품은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 21.9℃에서 가장 높은 수량성을 나타내었고, 하이아미와 대보는 22.4℃에서 가장 높은 수량성을 나타내었다. 중만생종 품종들은 중생종 품종들 보다 다소 낮은 등숙온도에 적응성이 높았으며, 가장 높은 수량성을 나타낸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은 삼광에서 22.1℃, 호품, 칠보 및 미품은 21.7℃, 진수미 22.0℃, 영호진미와 미품은 21.6℃, 수광은 21.9℃, 현품은 20.9℃였다. 따라서 각 품종별로 적합한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을 정리한 결과는 표 1-4에서 보는 바와 같다.

<표 1-4> 최고품질벼 품종별 적합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 종합

품종	현품	영호진미, 미품	호품, 칠보, 해품	수광, 고품	삼광, 진수미	하이아미, 대보
최적합 출수 후 40일간 평균기온(℃)	20.9	21.6	21.7	21.9	22.0~22.1	22.4